

전주시, 영화·영상산업 특화도시 도약 '탄력'

디지털 미디어 테크 산업 육성 포럼 개최... 전주시-전북도-크립톤, K-콘텐츠 산업 육성·투자 환경 조성 협약 체결

대한민국 1호 엑셀러레이터 기업인 (주)크립톤이 대한민국과 전주시 영화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8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봄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다양한 활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 독립영화의 산실'인 전주가 영화·영상산업 특화도시로의 도약하는 데 힘을 얻게 됐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6일 데이호텔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양경준 (주)크립톤 대표, 유성환 쿠에윙필름스튜디오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미디어 테크(K-Media Tech) 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디지털 미디어 테크(K-Media Tech) 산업, 전주의 미래가 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K-콘텐츠 산업 육성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디지털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발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와 전북도, (주)크립톤은 △전북·전주 지역 영화·영상 등 콘텐츠 기업 발굴 및 육성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콘텐츠 기업과 투자자 간 만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와 전북도, (주)크립톤이 전북·전주 지역 영화·영상 콘텐츠 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부 포럼에서는 '디지털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전문가 발표에는 유성욱 판더풀(주) 대표와 김호성 M83스튜디오 대표가 각각 '영화영상분야 온라인을 활용한 파이낸싱 사례'와 'AI 시대에서의 영화/영상산업의 세계와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전주 영화·영상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는 김도형 국민대학교 교수(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장)를 좌장으로 △영화·영상 분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위상과 영향력 △전주 영화·영상 산업의 밸류체인 관점에서 필요한 혁신 분야 △영화·영상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영화·영상산업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통해 관련 분야의 창업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청년 인재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만들어 강한경제 전주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대병원, 내년부터 전자계약 시스템 운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내년 1월부터 종이 계약을 대체할 새로운 전자계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전북대병원은 그동안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 의약품, 진료재료, 식료품 등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종이계약을 없애고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공급사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전자계약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인 제이아이엠에스와 협력해 병원 고유의 '전자구매 및 조달시스템(HLS : Hospital Logistics System)'을 개발했다.

전북대병원 HLS 시스템 가동에 따라 병원 협력 공급사는 병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견적서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 계약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김욱기기자

전주시, 430명 규모 장애인일자리아사업 추진

전주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총 430명 규모의 장애인일자리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추진된 374명과 비교해 56명 늘어난 것으로, 분야별로는 △일반형 일자리아(118명) △복지 일자리아(225명) △특화형 일자리아(43명) △전북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아(44명)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먼저 일반형 일자리아의 경우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주민센터, 장애인단체 등에서 공공 및 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전일제 주5일 40시간, 시간제는 주5일 2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특화형 일자리아로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등에 파견되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18명)과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아 사업(25명)

등이 제공된다.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는 경제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의 정도가 극도로 심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등 공공일자리아를 통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시와 각 수행기관은 이달 중 일반형 일자리아와 복지·특화형·권리중심 일자리아 참여자 선정을 마쳤으며, 선정된 장애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동 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배치된다. /김욱기 기자

전주한옥마을 공영주차장 모바일 자동결제 시스템 구축

전주시는 27일부터 전주한옥마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모바일을 활용한 자동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구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주차장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한옥마을 제1·2·3 공영주차장에 카카오톡모빌리티 모바일 자동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은 '카카오T'에 차량을 등록하기만 하면 주차장 출차 시 사전에 앱으로 결제한 후 편리하게 출차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친환경·저공

해, 경차 등 공영주차장 이용객면 대상자로 등록된 차량은 행정안전부와 연계를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된다.

시는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모바일 자동결제 서비스에 이어 구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사동 공구거리와 전북대 구성문 앞 '스마트 무인 노상주차장'의 유료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김욱기기자

주말·공휴일형 보육 서비스 제공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공모 우리모두어린이집 선정

내년 3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영유아를 돌보는 전주 지역 어린이집이 문을 연다.

전주시는 저출산 극복 및 상생금융 문화 확산을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우리모두어린이집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어린이집의 정규 시간 이후 부모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휴일 근무 등 사유한 시간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말 및 공휴일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주말·공휴일 운영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중 40개

소를 선정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내년부터 5년간 인건비·운영비 등 총 200억 원을 직접 지원한다. 이는 어린이집 1곳당 연간 최대 1억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우리모두어린이집은 내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취학 전 영유아라면 누구나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김중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맞춤형 보육이 부부 및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시간 단위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자녀 돌봄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무자격 운영사 변경 중단해야”

한승우 전주시의원,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불합”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삼천1·2·3동, 호치동)은 26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무자격 건설업체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시정질의 등을 통해 ‘불법한 운영사 변경 중단’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전주시는 법률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의 제42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에 대한 해석이 차이이며, 운영사 변경에 대해 시의 승인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

한 의원은 따르면, 협약서 제42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 전주시가 고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용어 정의에서도 '운영사: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

영회사로서 사업시행자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한) 자를 말한다'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한국환경공단에 의해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는 바로 (주)에스케이이위터(현, 에코비트위터)로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즉, '시설사업기본계획'과 '협약서'에 따르면,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출자자인 (주)에스케이이위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 운영회사가만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것.

한 의원은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협약서와 시설사업기본계획에도 없는 용어인 '공동운영사', '주관운영사'라는 개념을 주장함으로써 사안을 애곡한다고 지적한다.

즉 (주)리싸이클링에너지는 (주)태영건설, (주)한백건설, (주)성우건설, (주)에코비트위터 4개사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주관운영사 변경은 자신들의 재량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 의원은 "4개 회사는 공동운영사가 아닌 공동 출자자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 변경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전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이었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